***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3. 8. 17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사진 : 1. LS마린솔루션 직원들이 부산 사무실에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2. LS마린솔루션 CI 로고** |
| **문의** | **강철 차장(02-2189-9607, 010-9447-7079,** [**ckang@lscns.com**](mailto:ckan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LS마린솔루션’ 최대주주로..해저사업 밸류체인 구축**  **■ KT서브마린 지분 45.69% 확보, 17일 주총서 사명변경 등 의결**  **■ 해저케이블 전문 시공 역량 강화, 자재부터 시공까지 턴키 공급**  LS전선이 KT서브마린(KTS)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LS전선은 KT로부터 KTS의 지분 24.3%(629만558주)를 449억원에 매입, 총 45.69%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통해 경영권 지분을 잠정 확보한지 약 4개월 만에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LS전선 관계자는 “KTS 인수로 해저 시공 역량을 강화,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시공까지 턴키(turn key)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KTS는 금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LS마린솔루션’으로의 사명 변경 등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들을 승인할 예정이다.  KTS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동력인 해저 전력케이블 사업 참여와 자산 효율화 등에 힘입어 지난 20년래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상풍력단지 건설 확대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서해안 송전망 구축사업도 KTS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